



## ■ 공처가의 대답

한 공처가 경찰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려갔다. 그는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밟았다.

“자네 만약에 말이야, 아내를 체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참 생각하던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 ■ 의사와 환자 사이

‘의사와 환자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의사협회 세미나가 열렸다. 그런데 세미나 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강사가 나타나지 않자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이 헛령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성미 급한 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이거 참을 수가 없군.”

화가 난 의사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회의실 문이 잠겨 있어서 마지막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자 일제히 여기저기에서 의사들의

불평소리가 쏟아졌다.

“도대체 이게 뭐야! 강사 너석을 기다리느라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잖아!”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입니다. 자 이제 의사와 환자들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 ■ 부인의 대답

한 부인이 법원에 들어서다 금속 탑지기 검사를 걸렸다. 검사를 맡은 보안 직원이 말했다.

“부인 실례지만 혹시 칼이나 무기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러자 놀란 부인이 되물었다.

“아니 왜요? 그런 것이 필요한가요?”

## ■ 할아버지의 탄식

시골 할아버지가 도시에 구경을 와서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게 됐다.

생긴 것부터 신기해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미모의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그걸 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으嗟, 내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할망구를 데리고 오는 건데.”

## ■ 운전기사와 코끼리

한 남자가 태국 여행을 가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무릎 위에 신문을 엎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 기사는 가끔 신문을 찢어낸 뒤 다시 잘게 쪼개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물었다.

“실례하지만 왜 종이조각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거죠?”

“코끼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코끼리를 쫓는구요? 시내엔 코끼리 따윈 없어요.”

그러자 기사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 ■ 적반하장

한 여자가 핸드백 가게에 들어와 말했다.

“며칠 전에 이 지갑을 샀는데 색이 마음에 들

지 않아서 환불하려고 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일단 판 물건은 돈으로 다시 바꿔 드리지 않는 게 저의 상점의 방침입니다.”

“왜 환불이 안된다는 거죠? 저 이 지갑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상점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자가 지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우기며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점원이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다. 그런데 몇 분 뒤 그 여자가 들어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 말했다.

“저 실례합니다. 아까 그 지갑에 열쇠를 넣어 두었는데요.”

## ■ 환자의 대답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꼭 속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송아지 때부터요.”

## 리빙 센스

## 목살배기

1.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360도 회전한다. 목 뒤의 경추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동작을 실시한다. 오른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기울이고, 왼쪽으로 기울이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물다 앞쪽으로 목을 천천히 숙인다.

반대로 왼쪽 옆으로 머리를 천천히 돌린다. 이런 과정을 10회 반복.

2. 손을 허리에 얹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선다. 턱과 쇠골 사이에 테니스공을 끼우고 6초간 가만히 있다. 그런 다음 공을 빼고 목을 천천히 크게 돌린다. 왼쪽, 오른쪽 각각 3회 반복한다.

숨을 내쉬면서 목을 왼쪽, 오른쪽 각각 기울인다. 목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4회 반복 한다.

知天命의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음 10월 16일)丁巳

**子** 36년생 주의가 요망된다. 48년생 흥과 복이 다변사니 심신을 다스리다. 60년생 대고는 있으나 편지도 않다. 72년생 불화를 대화로 노력하면 애정으로 변하리라. 84년생 주변의 간섭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힐니 종종하게 자신하라. 행운의 숫자 : 11, 40

**丑** 37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49년생 자신의 밭길을 다시 한번 짚검하라. 61년생 좋은 매너에 좋은 처녀가 따르리라. 73년생 사소한 일로 관계에 가는 수도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85년생 화회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 26

**寅** 38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온다. 50년생 금하며 그르침이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62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웃에게 배울리라. 74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가 보이려는 시기다. 행운의 숫자 : 05, 38

**卯** 39년생 걱정의 98%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51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실마리니 수양하는 하루를 보내니. 63년생 새로운 투자를 내일로 미루고 현금을 짚검하라. 64년생 애인과 사랑싸움이 있다. 76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행운의 숫자 : 14, 29

**辰** 40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니 매사에 조심하라. 52년생 제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리라. 64년생 애인과 사랑싸움이 있다. 76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행운의 숫자 : 21, 37

**巳** 41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53년생 길한 일과 흥한 일이 동시에 있다. 65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77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니 걱정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8, 34

**午** 42년생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라. 54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과 전화하라. 66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을 터우니 자세하게 살펴보라. 78년생 이웃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 배가되며 풍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5

**未** 43년생 위험을 줄이고 실속을 위주로 진행하라. 55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67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끼우며 이웃을 돋보이니. 79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나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행운의 숫자 : 01, 31

**申** 44년생 멀리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56년생 문단속을 잘하여 마음이 편하다. 68년생 마음은 갈팡질팡 짐작도 못할 수니 정신을 가다듬고 지내라. 80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을 편하다. 행운의 숫자 : 19, 44

**酉** 45년생 실리는 적은 할 일은 많으나 선택을 잘하라. 57년생 끝까지 진행해도 심상이 쉽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다. 69년생 의형은 줄이고 실리는 드릴려야 산다. 81년생 오늘은 풀려우니 무엇이 부리우라. 행운의 숫자 : 04, 43

**戌** 46년생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58년생 문서는 죄워거나 실리는 없다. 70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학을 얻으리라. 82년생 제사가 불편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7, 45

**亥** 47년생 실리를 우선이나 실리를 취하리라. 59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71년생 타인의 시기가 괴롭히니 조심해서 수학을 보내라. 83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으로 보살펴라. 행운의 숫자 : 03, 36

www.cafe.dac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 시끌벅적 e-스타



## 스펀지도 몰랐다! ‘글 알맹이 세기’ 동영상 화제

“도대체 글 알맹이는 몇 개나 될까?”

세상 모든 것이 호기심이 사람들에게 솔깃한 질문이다. 세상은 넓고 궁금한 것은 많다. 세상은 넓고 집요한 사람도 역시 많다.

글 알맹이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원하게 해결해주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스펀지도 몰랐다! 글 알맹이 세기!’라는 동영상은 10만 네이트온의 호기심을 말끔히 셧여주었다.

임안에서 톡톡 상큼하게 터지는 글 알맹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자 글 알맹이 세기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은 칼, 글, 알맹이를 놓을 백지.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끈질기다’를 넘어 선집요한 인내력. 알맹이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 조심 글 껍질을 벗긴 다음 분해를 시작한다.

글 1개에 11쪽이 나왔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훈신의 힘을 다해 글을 모두 분해한 다음 알맹이 하나하나를 백지에 즐비하게 들어놓는다. 말이 쉽지만 꼽을 크기만한 알맹이를 들어놓는 것,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렇게 알맹이를 늘어놓기 시작한 지 6시간 20분, 6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탱탱한 글을 구성하고 있던 알맹이들이 모두 분해가 돼 백지에 빠르게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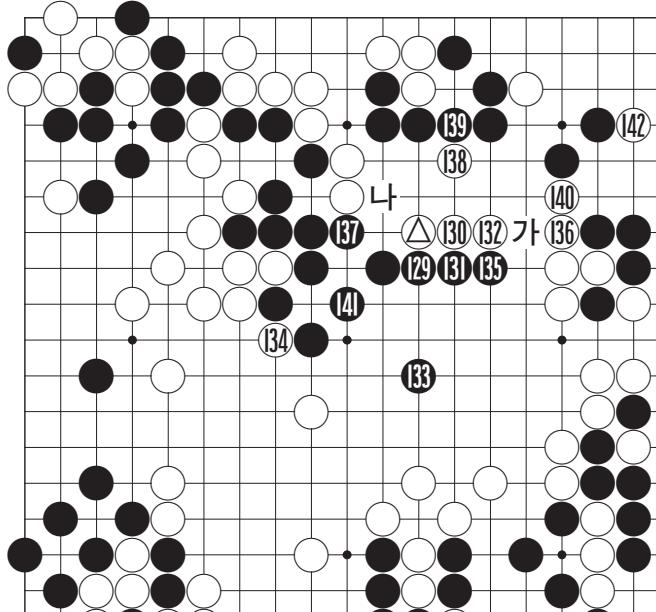
많은 이들이 궁금해 마지 않던 결론은 이렇다. 글 1쪽 평균 233개, 총 2천559개가 알맹이가 나왔다. 그자 대단하다는 감탄사만 나올 뿐이다. 동영상에 등장한 글의 딩이은 이렇게 말한다. “글 알맹이 세웠어요?”, “안 세어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흑 대마의 사활문제

어린이부 결승 8보(129~142)

白 나태현 黑 현승민  
(경기도) (제주도)



로 흑 대마를 공격하게 되어서는 이 대마의 생사가 승부가 돼버린 장면이다.

그러나 현승민군은 아직도 여유만만이다. ‘설마 이 대마가 죽으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흑 129, 131로 죽죽 밀고 133으로 자리를 잡아 ‘잡히지 않는’이라고 주장한다.

상대의 자신있는 태도에 놀랐던지 여기에서 나태현군이 침착을 잊고 경솔한 수를 두고 만다. 백 134로 단수진 수가 흑 대마의 숨통을 터준 대악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

고도’의 백 1부터 차근차근 공략할 곳이었다. 그런 다음 5, 7로 집모양을 줄이면 흑 대마가 살기가 어려웠다.

백 136도 조그마한 이익을 염두에 두며 눈 수로 그냥 ‘가’에 들어 대마 공략을 울인해야 했다. 흑

137이 ‘나’로 젖는 빙틀을 본 선수로 141로 드디어 대마가 살아가 버렸다. 그렇다면 백은 이제 우상귀에서 큰 수를 내야만 하는데 나태

현군이 142로 묘하게 불여간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SAN 웨스틴리조트

## 굿모닝 잉글리쉬 &lt;1188&gt;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A : How long will it take to wash the comforter?  
B : It take me about an hour, but I do it by hand.  
A : Can I do it in the washer?  
B : Maybe, it depends how big your washer is.

A : 이 이불을 세탁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B : 제 경우에는 약 한 시간 가량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뺍니다.

A : 그것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할 수 있나요?  
B : 아마도요, 그건 손님 세탁기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 달라야.

\* comforter : 이불  
\* washer : 세탁기  
\* do it : 마치다 (=complete)  
\* 딜러스에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Dallas?

## 오하요우 니혼고 &lt;1188&gt;

うとうとしてどうしたの。  
꾸벅꾸벅 졸고 왜그래?

A : うとうとしてどうしたの。  
B : 急きゅうに眠氣(ねむけ)が襲(おそ)って来(き)ちゃって…  
A : 先生がこっち見(み)てるんよ.  
  
A : 꾸벅꾸벅 졸고 왜 그래?  
B : 갑자기 졸